상상계와 현상계의 사이 :
헤테로토피아로서의 하얼빈

김미경*

〈차 례〉

1. 서언
2. 만주와 헤테로토피아
3. 하얼빈과 헤테로토피아
4. 결언-하얼빈과 공간들

【국문초록】

이 논문은 푸코의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을 하얼빈에 적용시킴으로서 만주가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이었음을 입증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대의 사고체계가 평면적이었다면 근대공간은 다층적 체계로 구성된다. 특히 푸코는 공간의 체계를 세 개의 공간 - 일상공간, 유토피아 공간, 헤테로토피아 공간 -으로 분류한다. 그에 따르면 헤테로토피아란 '상상의 공간', '현실의 공간', '탈주의 공간', '전이의 공간'이고 '폭로의 공간'이며 '발견의 공간'으로 차이를 생성하고 통합하는 공간이다.

하얼빈은 러시아에게는 탈주의 공간이요, 중국에게는 탈영토의

* 대구가톨릭대학교

공간으로 중국에 속해 있으나 중국이 아닌, 한편으로는 이민족의 지배 하에서도 너무나 중국적인 도시였다. 하얼빈은 다수의 이주자들을 중심으로 제3의 존재론적 공간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신인간, 신인류의 종을 만들어내는 공간으로 전환되었다.

이 논문은 실증적 연구를 통한 만주의 재발견을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푸코가 제시한 헤테로토피아의 개념 틀 안에서 하얼빈의 야간학교, 공장의 노동운동, 그리고 매춘굴과 같은 다양한 장소를 통해 나타나는 새롭고도 이질적인 질서의 발생과 더불어 점차 불균질하고 혼종된 공간으로 전환되어 나가는 하얼빈, 나아가 만주의 모습을 고찰하고 있다. 그리하여 만주에 내재된 하얼빈의 다면적이고 중층적인 모습을 통해 헤테로토피아로서의 하얼빈 도시공간이 복합적인 역사적 경험이 낳은 문화적 혼종성의 산물임을 입증하고 나아가 만주의 모습을 사회사적으로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승자, 패권, 권력의 관계망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면, 헤테로토피아는 역사의 다층적이고 중층적인 측면의 분석을 통해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표면적인 모습으로서의 만주가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춰진 공간적 의미를 부각시킴으로서 만주를 새로운 장소와 공간에 위치 지우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공간의 정체성 측면에서 만주가 왜 헤테로토피아인가를 다각도의 측면에서 규명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만주에 대한 실증적 연구보다는 하얼빈이라는 도시공간을 통해 나타나는 문화적 잡종화와 다양한 주체들의 탄생을 통해 만주라는 공간이 단지 제국주의에 희생된 '죽은 공간'이 아니라 다른 어느 장소나 공간보다도 활력에 넘친 생기 있는 장소이며 살아 있는 공간이었음을 입증함으로서 만주의 역사를 동아시아 또는 세계사 속에서 새롭게 위치 지우며, 나아가 이 세계는 '역사(History)'가 아닌 '역사들(histories)'의 역사임을 밝힌다.

주제어: 하얼빈, 헤테로토피아, 공간성, 문화적 혼종성, 창조적 주체, 매춘, 학교, 노동운동, 동청철도, 러시아,

1. 서언

고대의 사고체계가 사물들을 하나의 단편적으로 시대를 구분하는 평면적 사고를 가졌다면 근대공간은 3차원, 4차원의 다층적 체계로 구성된다. 특히 자본주의의 발달 이후 도시공간의 발달은 상업화와 과밀화로 인해 다양성이 증대되면서 인간 삶의 다양성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공간'이 인간의 중요한 인식 단위나 하나의 개념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1980년대 말 이후이다. 이때 공간이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상상의 공간' 나아가 이 둘의 개념이 합쳐진 '제3의 공간'을 의미한다. 이 공간은 현상계이면서 상상계의 공간이 된다.[1)]

푸코의 논의에는 세 개의 공간이 존재한다. 첫째,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공간' 즉 현실적인 공간이다. 둘째, 한 사회 구성원들이 꿈꾸는 비실제적, 비현실적 공간인 유토피아가 있다. 셋째, 여타의 공간들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헤테로토피아'가 있다. 헤테로토피아는 '현실' 안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의미에서는 일상적 공간과 같

1) 공간의 개념의 선구자로는 게오르그 짐멜이나 발터 벤야민, 2세대로서 앙리 르페브르와 에드워드 소자, 그리고 다음으로 미셸 푸코와 질 들뢰즈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사유의 '공간적 전환'을 선도한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이러한 시도는 지금까지의 단순한 제1공간(실재 공간)과 제2공간(상상의 공간)의 이원론을 해체하고 각각의 고정된 틀을 넘나들면서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실재 공간과 '비슷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대안을 생산해내는 공간성을 띤다. 이런 의미에서 제3의 공간은 전통적 의미의 고정된 불변의 공간과는 '다른 공간'이며 동질적으로 규정되기보다는 이질적인 공간을 의미한다.

지만 여타의 일상적 '정상적' 공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자신만의 기능과 규칙을 갖는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이처럼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적인 동시에 신화적인 공간이다. 헤테로토피아는 반드시 '희망의 공간'은 아니며, 순수하고 완전한 헤테로토피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서로 상호관계하고 반향하며, 충돌하고 조합하면서 혼란스런 시공간 단위를 만들어가는 관계를 가지는 헤테로토피아만이 존재할 뿐이다.

푸코에게 의미하는 헤테로토피아란 '상상의 공간', '현실의 공간'이고 '탈주의 공간', '전이(transformation)의 공간이고, '폭로(revelation) 또는 발견의 공간'이다.[2] 하얼빈은 러시아에게는 탈주의 공간이요 중국에게는 탈영토의 공간으로 역사적으로 중국에 속해 있으나 중국이 아닌, 한편으로는 이민족의 지배 하에서도 너무나 중국적인 도시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얼빈은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헤테로토피아 공간은 보편성과 합리성에 저항하며 자본주의적 공간화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도시공간으로, 발생적으로 차이를 생성하고 '통합'하는 공간이다. 즉 중심의 창조와 파괴가 연속되는 잠재력의 공간인 것이다. 만주에서 일어난 제국과 식민권력 간의 갈등과 중심의 해체는 바로 만주가 헤테로피아의 공간임을 입증하며, 그 중심에 하얼빈이 있다.

하얼빈은 다수의 이주자들을 중심으로 제3의 존재론적 공간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신인간, 신인류의 종을 말들어내는 공간이 되었다. 이 도시공간 속에서는 동질성과 이질성이 혼합과 갈등을 경험

2) 강정민과 김동일은 「미셸푸코와 미술관에 관한 테제들」에서 미술관이라는 공간을 '차이의 공간', '지식의 배치로서의 공간', '권력의 형식으로서의 공간'으로 나누어 헤테로토피아를 설명한다. 푸코에 따르면 헤테로토피아는 내부의 공간이 아닌 '외부의 공간'이고, 동일성이 아닌 이질성, 즉, '차이의 공간'이며, "환원 불가능한 총체"이고 "관계들의 조합을 통한 배치"의 형태로 제시되는 공간으로 설명한다. 강정민 · 김동일, 「미셸푸코와 미술관에 관한 테제들」, 『인문연구』, 66, 2012, p. 140.

하면서 새로운 질서에 입각한 공간의 탄생과 더불어 새로운 인간의 탄생이 예고되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감시와 권력이 생산되고 근대적 유형의 국가와 민족이 아닌 다인종 다민족의 복합국가의 탄생이 예고된 것이다.

하얼빈은 우리에게는 안중근의 의병운동을 비롯하여 우리의 독립운동과 연관해서도 친숙한 도시이다. 역사적으로 청의 지배 하에서 강제 이주와 더불어 '비어 있던 공간'이었으나 동청철도의 건설과 더불어 러시아인들에 의해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그리고 일본의 만주점령과 더불어서 '제국주의를 통한 욕망의 공간'으로, 마지막으로 중국의 지배 하에서는 '탈영토화된 공간'으로의 변화를 경험해 왔다.

그러나 중국인의 입장에서 하얼빈이 중국이 아니었던 적이 있었던가? 하얼빈에는 조차지를 중심으로 시내에는 외국인과 서양식 건물이 즐비하고, 중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중화바로크' 양식의 건물들이 서양의 영향력을 증명하고 있지만, 그 저변에는 중국인의 문화와 관습이 항상 존재해 온 이중성을 띤 도시이기도 하다.

공간, 지식, 권력의 관점에서 서구인들은 중국인들보다 지식을 배경으로 훨씬 더 앞서 권력을 장악하고 공간의 점령을 의도했다. 그 극명한 예가 바로 동청철도의 부설이라고 하겠다. 동양에서는 일본이 메이지유신을 통해 빠르게 서양의 지식을 도입하여 서양의 지식을 배경으로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제국주의의 실현으로 공간 잠식에 나서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공간의 구성체의 주요 요인은 바로 권력이 되는 것이며, 공간과 장소의 성립 이면에는 바로 권력에 의한 힘의 역학관계가 작동한다고 할 것이다. 만주의 하얼빈 사람들은 철도를 중심으로 위치를 바꾸면서 새로운 공간을 형성해 왔다. 따라서 이 공간은 각각의 민족들이 전통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는 '욕망의 공간'으로, 물질적 번영과 부를 기반으로 하

는 개인에게는 '풍요의 공간'으로,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의 공간'으로 탈바꿈해 왔다.

하얼빈에 대한 평가는 '극동의 파리', '동양의 엘도라도'로부터 '죄악의 도시' '쓰레기 더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평가가 있다. 흑룡성 지방의 수도인 하얼빈은 중국 최북단의 중심도시이다. 하얼빈은 만주의 북쪽을 가로지르는 송화강의 언덕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베리아에 근접해 있어 그 곳 기후의 영향으로 겨울은 길고 춥고 건조하며, 여름은 짧고 덥다. 이 도시는 그 이름부터 서구적인 냄새가 나고, 특히 양파모양의 러시아식 교회가 도시 중앙에 위치하고, 조약돌을 붙여 만든 서구식 건물들이 이방인들의 도시임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얼빈은 오늘날의 방문객들에게 1980년대의 개방과 국제화에 비교적 영향을 적게 받은 역시 서구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중국의 도시임을 느끼게 하는 양면성을 지닌다.[3)]

이러한 양극의 특징들은 바로 이 도시의 특징적인 역사로부터 나온 것이다. 약 백년에 걸쳐 하얼빈은 러시아를 비롯하여,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 일본, 소비에트 연합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국공산당에 의해 지배되었으며, 중국 내 어떤 도시보다도 더 극적인 역사적 변화를 경험해 왔다. 하얼빈은 외부적으로는 중국, 러시아, 일본의 권력의 각축장이었으며, 내부적으로는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분출되는 모든 의문과 고통들이 그대로 체현된 장소이다.

하얼빈의 역사는 네 범주로 구분된다.[4)] 첫째, 러시아의 지배·

---

3) Søren Clausen · Stig Thøgersen, *The Making of a Chinese City: History and Historiography in Harbin*, (New York: An East Gate Book) 1995, pp. xi-xii.

4) Soren Clausen과 Stig Thøgersen의 경우는 하얼빈의 역사를 다음의 네 개의 시기로 구분한다. 1. 러시아에 의한 동청철도 부설 이전, 2. 러시아 점령시기, 3. 일본정복-만주국시기, 4. 1946년 중국 공산당 점령시기이다. Søren Clausen · Stig Thøgersen, The Making of Chinese City, p. xi.

통치로 러시아의 문화와 기억들이 잔존하던 시기, 둘째, 주로 1907년부터 1930년까지 서구의 선교사들과 상인들에 의해 하얼빈이 '국제화'되던 시기, 셋째, 일본의 만주국 건립으로 가혹하고 혹독한 기억의 시기, 네 번째는 중국의 시기이다. 이 전 시기를 통털어 하얼빈의 역사는 착취와 학대, 무시로 점철된 분노와 고통의 역사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얼빈의 역사야말로 장소와 공간의 성립에 권력이 어떻게 작동해 왔으며, 중국에서 국가와 지방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실증적 연구를 통한 만주의 재발견을 기획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푸코가 제시한 헤테로토피아의 개념 틀 안에서 하얼빈의 야간학교, 공장의 노동운동 그리고 매춘굴과 같은 다양한 장소를 통해 나타나는 새롭고도 이질적인 질서의 발생과 더불어 점차 불균질하고 혼종된 공간으로 전환되어가는 하얼빈, 나아가 만주의 모습을 고찰해 보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만주에 내재된 '일탈된 공간, '보상의 공간' '욕망의 공간' '기회의 공간' '환락의 공간' 등 하얼빈의 다면적이고 중층적인 모습을 통해 헤테로토피아로서의 하얼빈 도시공간이 복합적인 역사적 경험이 낳은 문화적 혼종성의 산물임을 입증하고 나아가 만주의 모습을 사회사적으로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역사는 '승자의 역사'라고 했던가. 지금까지의 역사가 승자, 패권, 권력의 관계망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면, 헤테로토피아는 역사의 다층적이고 중층적인 측면의 분석을 통해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표면적인 모습으로서의 만주가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춰진 공간적 의미를 부각시킴으로서 만주를 새로운 장소와 공간에 위치 지우려고 함이다.

2. 만주와 헤테로토피아

1) 헤테로토피아의 등장배경과 개념정의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을 무대로 살아간다. 역사는 사람들의 행동을 시간성 속에서 파악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역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 온 사람들의 행동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근대성 속에서 역사는 이성과 진보라는 계몽사상에 의해 일직선상의 시간성 속에서만 주로 회자되어 왔다. 근래에 서양적 이성의 보편성이 종언을 고하고, 서양세계가 한계성을 경험하면서 근대의 합리성과 그에 근거한 서양 문명 전반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일어나게 되었다. 역사의 시간성이 공간성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된 또 다른 배경은 서구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의 역사학이 국민국가와 계급국가를 정당화하면서 기념비적 시간을 강조한 시간중심의 역사인식에 매몰된 것을 반성하기 때문이다.

역사적 변화의 동력이 공간에서의 이종성과 차이성, 갈등과 모순에서 비롯된다고 볼 때, 역사와 공간의 성립은 상호필연적일 수밖에 없으며 근대 자본주의의 발달이 공간의 재편성에 관심을 두면서 공간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공간에 대한 관심은 포스트주의, 예를 들면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구조주의, 포스트식민주의와 같은 포스트 학문의 영향이 크다. 역사에 있어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질성과 차이를 강조하면서, 역사의 탈중심화를 기도한다. 또한 역사와 사회 현실을 하나의 틀, 일률적인 설명, 그리고 통일되고 일관된 역사체계로 파악하는 접근방식을 비판하고, 대신 역사 현실의 다양성과 차별성, 불투명성과 불확실성 그리고 모순성에 대한 인식을 강조한다. 푸코 역시 탈중심화된, 중심이 없는 국지화 된 공간을 지향한다,

베르그송은 우리가 지각하는 시간의 관념은 사실은 시간이 아니

라 공간적 속성으로 치환된 시간, 즉 공간화된 시간이라고 말한다. 시계바늘이 움직인 거리로 표시되는 시간, 그것은 '거리'라는 공간적 양으로 바꿔진 시간이 된다.[5] 공간의 개념은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마르크스의 역사유물론과 실증주의 사회과학에 의해 자본주의 발전을 역사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철저하게 탈 정치화되고 외면당해 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역사주의의 결점을 지적하면서 공간을 사회적 산물이자 동시에 사회생활을 구성하는 원동력으로 인식하면서, 앙리 르페브르(Henry Lefevre)와 미셸 푸코(Michell Facult)와 같은 학자들은 공간에 대한 논의가 사람의 행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6]

서구의 사상과 이론은 비록 내부의 대립과 모순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종국에는 목적론적으로 통합하는 단일하고 절대적인 통일성을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절대적 통일을 비판하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의 모색이 일부 학자들-예를 들면 푸코, 들뢰즈, 데리다, 하비, 르페브르 등-을 중심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인간의 의식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육체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차이로서의 '틈새 공간'을 이해하려는

---

5) H. Bergson, *Essai sur les données immédiates de la Lonscien*ce,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그린비, 2006. pp. 57-58.

6) 지식, 권력, 공간성의 관계에 대해 연구를 한 푸코는 『Of Other Spaces』에서 헤테로토피아의 이질적인 공간은 르페브르가 논의하고 있는 경험공간(lives space)으로서 사회적으로 창출된 공간성이며 사회적 실천이라고 피력한다. 한편 르페브르는 공간이 동질적이고 가치중립적이며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정치적이며 이데올로기적임을 강조한다. 르페브르에 따르면 "공간이 역사적·자연적 요소로부터 형성되고 주조되어 왔지만, 이것은 정치적 과정이었다. 공간은 정치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이다. 그것은 글자 그대로 이데올로기로 가득 찬 산물이다."(르페브르, *The Survival of Capitalism*, 1976, p. 31), 한편 푸코는 "거창한 지정학적 전략에서부터 작게는 작은 삶의 공간을 지배하는 전술에 이르기까지 공간들에 대한 기술은 곧 권력들의 역사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푸코, *Power and 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1980, p. 149).

노력을 보여 왔다. 달리 표현하면 보편성에 바탕을 둔 동일의 세계가 아닌 사물 간의 '차이'에 주목하면서 '틈새 공간' 또는 '제3의 공간'에 주목한다.

역사의 근대성의 핵심은 바로 유럽중심주의 세계관에 있다. 따라서 역사의 탈근대성, 탈유럽중심주의가 강조되면서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의 역사가 주목받고, 지역의 구체적인 양상들이 과거에 비해 더욱 중요해졌다. 역사 속의 유럽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은 필연적으로 세계사에 대한 유럽 열강들의 제국주의 팽창과 맞물린다. 19세기 이래 근대 국민국가의 권력을 배경으로 한 영토 확장은 지도상의 경계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곧 공간의 변화로 이어졌다. 가히 현대는 '공간의 시대'이며, 공간은 자본주의의 발달과 그로 인한 계급의 발생으로 더욱 중층적인 특성을 지닌다.

만주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역사의 탈중심화'와 '타자에 대한 인식', '소수자의 역사들의 부상' 나아가 공간 연구의 확대로 인한 새로운 세계사의 탄생이 그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챠크라바티(Dispesh Chacrabarty)는『유럽의 변방화(Provincializing Europe)』에서 세계사의 탈중심성을 논하면서 유럽중심주의를 강하게 비판한다. 최근 만주 또는 동아시아에 관한 관심과 연구는 '새로운 세계사'의 부상과 '주변부의 역사'에 대한 중요성의 증대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푸코에게 헤테로토피아란 어떤 공간적 의미를 지니는가?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는 '다른, 낯선, 다양한, 혼종된'이라는 의미를 가진 hetero와 장소라는 의미의 topos/topia의 합성어로서 푸코가 권력의 공간에 대항하는 대안공간으로서 제시한 개념이다. 푸코에 따르면 공간에 대한 세계인식의 다양한 변화와 역사인식 변화의 융합이 발생한 공간이 바로 헤테로토피아라고 할 수 있다.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적 특징은 장소 없음과 분산된, 가깝고도 먼, 현존하면서도 부재하는, 일상과 정반대되는 역설적이고도 모순되

는 공간이며, 역사적으로 주변부의 조건에서 '타자의 장소'로 인식되는 곳, 차이공간이면서도 '차이를 통합'하여 유토피아를 출현시키는 공간이다. 따라서 헤테로토피아는 그 특성상 이질성, 혼종성, 타자성, 차이성, 유연성, 불확실성, 환상성 등을 내포한다.

푸코는 헤테로토피아를 구성하지 않는 인간의 문화, 인간의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한편으로는 헤테로토피아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헤테로토피아는 각 문화마다, 또 동일한 문화 속에서도 역사적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보편적이면서도 또한 다변적인 헤테로토피아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을 헤테로토폴리지(Heterotopology)라고 설명한다.[7] 푸코 자신이 설명했듯이 지금은 '공간의 시대'이며 문화담론은 공간적 전환(spartial turn)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만주 연구에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는 새로운 공간 이해의 지평을 확장시키는데 있다고 보겠다.

2) 만주-왜 헤테로토피아인가?

만주를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모든 사물의 모습을 다양체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물을 동일자와 타자의 경계에서 사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푸코식의 역사학에 따르면 '근대의 진화론적 진보주의'와 '급진적 변화의 전망' 대신 '권력과 지배의 특수한 요소들을 지적하고 그들에 보다 더 잘 저항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지적(可知的)으로 만드는 것'[8], 이것이 바로 푸코의 지식의 계보학이며, 역사학이다.

---

7) 배정희, 「카프카와 혼종공간의 내러티브-『국도 위의 아이들』과 헤테로토피아」『카프카연구』, 22, 2009, p. 45.

8) 마크 포스터 저, 이정우 역, 『푸코, 마르크시즘, 역사』, 인간사랑, 1991, p. 178.

공간의 경우, 푸코는 19세기 초에 시간이 급격히 세속화된 것과는 달리, 공간은 여전히 신성화에 묶여 사적 공간/공적 공간, 가족적 공간/사회적 공간, 문화적 공간/실용적 공간, 여가 공간/노동공간의 대립이 지배되고 있다고 본다.[9] 이와 같은 공간의 근대성을 벗어나고, 장소의 폐쇄성을 탈주하기 위해 헤테로토피아란 개념이 필요하다. 헤테로토피아는 근대성의 주변적인 장소로서, 근대 질서와 근대성의 닫힌 상태와 확실성을 붕괴시키는 혼재와 변이, 위기의 장소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헤테로토피아는 국민국가를 바탕으로 하는 근대 사회의 영토에 천착된 질서를 해체할 뿐 아니라 지식의 질서를 해체하며, 그와 관련된 권력의 질서 또한 해체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주를 헤테로토피아라는 프리즘을 통해 바라봐야 하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왜 만주가 헤테로토피아인가?

첫째, 공간의 이질성과 타자성의 측면에서, 주체적 이성이 타자를 생산해 내는 판옵틱한 성격의 공간을 비판하고, 탈중심화하는 이질적 공간의 탄생이 헤테로토피아라고 할 때, 만주라는 공간은 바로 헤테로토피아가 된다. 헤테로토피아는 '다른 공간'이면서 '타자의 공간'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모든 장소와 관계를 맺으면서도 동시에 그것에 저항하는 주변적 공간이다. 400여 간 비어있던 공간, 타자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온 만주가 동청철도의 부설과 더불어 이주와 이산의 공간으로 전환되면서 만주는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으로 변화했다.

헤테로토피아는 반공간(counter-space)[10]의 의미라는 점에서도 만주는 헤테로토피아가 된다. 헤테로토피아는 한 사회에서 모든 장

9) 배정희, 앞의 논문, p. 46.

10) 이진경은 counter-space를 '대안공간'으로, 허경은 '반공간'으로 번역하지만, 그 내용은 현실에 배치되는 공간, 차이를 발생시키는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모두 같은 내용이다.

소와 관계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것과 모순되어 있는 기묘한 장소, 일상생활로부터 일탈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주민에게 만주라는 장소는 곧 헤테로토피아가 된다. 예를 들면, 푸코는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으로서 감옥, 정신병원, 박물관, 도서관, 정원, 묘지, 유원지, 식민지, 매춘굴 등을 언급한다. 즉 사람들은 그 곳에서 다른 곳과는 다른 방식으로 특별하게, 비일상적이고 제한된 시간을 보낸다. 만주에 온 이주민들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일상적이면서도 일탈의 삶을 만주에서 경험한다. 이처럼 만주는 주위공간에서 이탈한 공간, 반공간이지만, 주위공간에 의해 간섭받으면서, 주위공간에 반영된 질서를 어느 정도 스스로 반영하기도 한다.

둘째, 공간의 혼종성이라는 측면에서, 16세기 이래 만주의 역사가 혼합성, 다양성을 가진 특이한 공간이며, 인종적, 문화적으로 복합 공간인 것은 중국 민족주의자들을 제외하고 부정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 중 만주의 이종(異種)혼합성과 그로 인한 문화적 혼종성(cultural hybridity) 또는 문화 코스모폴리타니즘은 만주가 이질적이고 복합적인 공간이었음을 증명하는 사례들이다. 탈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오늘날 만주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만주에 대한 인식과 고정관념을 해체하고자하는 노력도 만주에 내재하고 있는 정치적, 문화적 이질성과 혼종성이라는 관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푸코가 헤테로토피아를 '차이공간', '타자공간' 또는 '차이를 통합하여 유토피아를 출현시키는 공간으로 볼 때 복합민족국가이면서 융합의 공간인 만주는 바로 헤테로토피아가 된다.

푸코가 정원은 '자연성'과 '인공성'이라는 상반된 두 측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혼종적이라고 설명했듯이 이러한 혼종성이야말로 근대적 폐쇄성을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되고. 만주라는 복합적 민족국가의 혼종성은 이성을 기반으로 한 민족적 근대국가의 해체

를 시도했다고 하겠다.

셋째, 공간의 사회적 관점에서, 푸코에 의하면 헤테로토피아는 그 기능면에 있어서 기존의 사회공간과는 다르면서 심지어 대립적이기 조차한 특이한 공간이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공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것들의 합법성을 교란시키는 기묘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만주가 지난 400여 년 동안 한족과 만주족, 청과 러시아. 러시아와 일본 및 서구 열강들의 침탈을 통해 중국 내 어떤 장소에서 보다 대립과 갈등이 폭발한 장소라고 볼 때 만주는 국가와 민족 또는 인종과 문화라는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식민지적 상상계'라는 디스토피아의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상의 공동체'라는 유토피아적인 측면도 다분하다. 특히 만주와 한족 엘리트간의 정치·문화적 혼합(Sino-Manchu amalgam)과 이로 인해 민족 간의 차이가 무의미해지면서 태평천국의 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현상은 청조의 질서를 교란시키며 새로운 질서를 창출했음을 증명한다.

넷째, 헤테로토피아의 정치, 지리적 관점에서, 푸코는 근본적으로 근대공간은 자연과 문화적 공간이라기보다는 정치, 경제적 공간이라고 설명한다. 푸코에게 헤테로토피아란 근대세계의 특징적 공간이며, 끝없이 확장과 측량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유토피아가 아닌 절대적 타자의 공간이다. 이처럼 정치, 지리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날 만주는 비록 중국 중심의 정체성과 내셔날리즘이 정착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동아시아 또는 세계사 속 어떤 시대, 어떤 지역보다도 대립과 갈등이 폭발한 공간이었다. 이 공간은 역사적으로 중국에 속하면서 중국이 아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철저한 중국임을 입증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만주는 헤테로토피아적 속성을 지닌 공간으로 분류된다. '만주'라는 용어 자체만 보더라도 만주는 '만주국'과 연관되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동북아'라고 부른다. 실제 '중화민족'을 구성하는 '민족'을 하나

로 부를 때는 만족(滿族)이지 '만주(민)족은 아닌 것이다.[11]

정체성의 문제에서 볼 때, 만주족의 정체성은 원래 본질적이고 민족적(ethnic)인 것이 아니라 국가(청)가 만들어 낸 '정치적(political)'인 것의 산물인 것이다. 크로슬리(Parmela K. Crossley)의 주장에 따라, 만주족의 정체성은 1911년 신해혁명 이후에 만주족에 대한 박해로 더욱 내면화되고 강화된 것으로 본다면, 만주족의 정체성은 한족과의 정치적 관계 속에서 탄생한 것으로 풀이 된다.[12] 이 이론에 대해 엘리옷(Mark C. Elliot)[13]은 팔기제도에 의해 만주족의 정체성은 형성되고 이 제도와 개혁을 통해 만주족의 민족주권과 정체성이 유지되어 나갔지만, 결국 만주족들이 한족 문화에 동화되어 문화적·인종적 혼종성이 가속화 된 것이라고 반박한다. 크로슬리처럼 만주족의 정체성 형성을 위로부터 해석하건, 엘리옷처럼 아래로부터 해석하건 문화적·인종적 혼종성은 새로운 정체성과 문화를 창출해 왔고 이는 지금도 만주를 '중국의 근대'라는 특이한 장소로 남아 있게 한다.

또한 만주족은 '문화적 일관성의 부재(cultural incoherence)'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적 결합력(cultural coherence)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민족성(ethnity)의 개념에서는 문화적 동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주족은 한족과 구별된 민족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는 바로 푸코가 말하는 만주가 이종성의 공간, 즉 헤테로토피아임을 입

11) 나카미 다시오 외 공저, 박선영 역, 『만주란 무엇이었는가?』, 소명출판사, 2006. pp. 17-32.

12) Parmela K. Crossley, *Orphan Warriors: Three Manchu Generations and the End of the Qing World*(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90; *A Translucent Mirror: History and Identity on Qing Imperial Ideology*(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13) Mark C. Elliot, "The Limit of Tartary: Manchuria in Imperial and Natioanal Geographis", *Journal of Asia Studies*, 59(3), pp. 603-646.; *Manchu Way: The Eight Banners and Ethnic Identity in Late Imperial China*(Standford: Standford Univ. Press), 2001.

증하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공간의 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 볼 때, 만주가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이었음은 특히 만주국의 건국이념에 잘 나타난다. 만주국을 건국한 일본은 '만주국'을 '다민족국가'로 인식하면서 '오족협화(五族協和), 왕도락토(王道樂土), 민족협화(民族協和)는 이질적인 인종의 집합을 하나의 국가의 틀 속에 담아내기 위한 이데올로기의 수단이었다. 만주국은 일본식민지제국이면서도 일본에게 영토화 되지 않는 공간이며, 중국 영토에 있으나 중국은 아닌 기묘하고 이질적인 공간이다. 만주국은 완전한 '괴뢰국'도 아니며 '독립국'도 아니고, '실제적'인 것도 '관념적'인 것도 아닌 상상계가 작동한 '복합적 민족국가'의 특성을 가진 점에서 헤테로피아인 것이다.

특히 만주국은 헤테로토피아의 다면한 특성 중 '환상성'의 특징을 보여 준다. 헤테로토피아가 자신의 환상성을 통해 나머지 다른 공간들의 환상성를 폭로하거나 또는 다른 공간에서 나타나지 못하는 하나의 완벽한 질서를 구현한다면, 우리는 어떤 공간이 단일한 문화권 내에서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인지 입증하기 어렵다. 이것이 바로 푸코가 말했던 바, 헤테로토피아는 문화 마다 다르며, 한 문화 내에서도 그것의 역사적 전개 속에서 다양하고 유동적으로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지배와 피지배, 수탈과 저항이라는 근본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공간인 만주국은 단순히 복수의 민족들이 병존하는 '다민족 국가'가 아니라 만주국의 이념을 바탕으로 이주·이산으로 모여든 민족들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고유의 민족 정체성을 넘어서 새로운 이상을 실현시킨다는 '환상성'을 내포한다.[14]

---

14) 윤휘탁, 『만주국: 식민지적 상상이 잉태한 복합민족국가』, 혜안, 2013. 이 저서에서 윤휘탁은 만주국이 일본 식민주의자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복합민족국가'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만주국에서는 민족적 위계가 확연하며, 민족차별과 갈등, 각종 민족 모순이 만연해 있었다. 또한 그는

여섯째, 공간의 정체성 측면에서 만주는 헤테로토피아이다. 만주에는 러시아를 비롯해 유럽 각국과 이스라엘, 일본, 한국 등 실로 수많은 국가와 민족이 진출한 땅이다. 이주민 대부분은 영토 없는, 국경 없는 또는 국가권력이 작동하지 않는,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다. 이곳은 철저히 탈영토화된 장소로서 한편으로 이 장소는 '보상공간'으로서 재공간화된 유토피아이기도 하다. 이상 세계에는 존재하지만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유토피아(非所性)하고 한다면, 헤테로토피아는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나 결코 장소성을 가지지 못하는 '장소 밖의 장소(異所性)'를 말한다. 즉 유토피아와 헤테로토피아는 '거울의 이미지'로서 고향을 등지고 온 이주민들은 고향에서 출발하여 만주로 왔으나 그 곳에서 자신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재확인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해 나가게 된다. 이것은 바로 거울의 헤테로토피아라고 할 수 있다. 근대에서 유토피아가 역사의 발전으로서 시간화된 이상세계라면, 헤테로토피아는 재공간화된 유토피아인 것이다.

위의 이론에 기반하여 이 연구는 만주에 대한 실증적 연구보다는 하얼빈이라는 도시공간을 통해 나타나는 문화적 잡종화와 다양한 주체들의 탄생을 통해 만주라는 공간이 단지 제국주의에 희생된 '죽은 공간'이 아니라 다른 어느 장소나 공간보다도 활력에 넘친 생기 있는 장소이며 살아 있는 공간이었음을 입증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하얼빈이라는 도시공간에 위치한 학교와 매춘굴 또는 공장의 모습을 통해 하얼빈, 더 나아가 만주의 역사를 사회사적으로 고찰함으로서 동아시아 또는 세계사 속에서 만주를 새롭게 위치 지우고, 그럼으로써 이 세계는 '역사(History)'가 아닌 '역사들(histories)'의 역사임을 밝히려고 한다.

'만주국인', 만주국 신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찾을 수도 없었고, '복합민족'으로서의 독특한 정체성도 드러나지 않은 단순히 식민지적 상상 속에서 잉태된 허상이었다고 설명한다. pp. 7-9.

3. 하얼빈과 헤테로토피아

푸코는 공간과 권력에 관해 “공간은 모든 형태의 공동체적 삶에서 근본적인 것이며, 모든 권력의 행사에서도 근본적인 것이다.”[15] 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서로 상이한 방식으로 위치하여 상호 겹쳐질 수 없는 현장들이 병치된 일련의 관계들 속에서 살고 있으며, 이러한 현장의 공간은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권력이 작동하는 공간인 것이다. 푸코는 이러한 권력에 대항하는 대안 공간으로서 헤테로토피아를 제시한다. 따라서 헤테로토피아는 인지적 직관으로 채워진 유토피아와 같은 공간이 아니라 사회의 지배질서를 교란시키며 어딘가에 전재하는 현실감을 지닌 장소로서 일상생활로부터 일탈된 타자적 공간을 생산하는 잠재성을 내재한다. 또한 헤테로토피아 안에서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서로 간에 갈등하고 화합하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생성하고 분출시킨다.

하얼빈은 다수의 이민자들이 모여서 성립된 ‘타자의 공간’이며 시간에 따라 권력의 주체가 바뀌면서 영토화와 탈영토화를 거듭한 공간이다. 이 장에서는 하얼빈이라는 도시공간의 성립을 배경으로 공간과 권력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하얼빈의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하얼빈의 헤테로토피아 되기(becoming)를 추적한다.

1) 장소와 공간의 성립 : 제국권력과 헤테로토피아

르페브르는 『자본주의의 생존(The Survival of Capitalism)』에서 공간이 모든 형태의 공동체의 삶에 있어 근본이 되며 인간 존재의 공간적 질서가 공간의 사회적 생산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점을 지

15) 푸코, “Space, Knowledge, and Power”, *The Foucault Reader*, Paul Rabinow (ed.), (New York: Pantheon), 1984, p. 252.

적하고 있다. 그는 사회적으로 생산된 공간은 지배적인 생산관계가 재생산되는 곳으로 자본주의 발달과 더불어 파편화되고 동질화되고 계층적으로 구조화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그 자체로 이질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16]

'에서 헤테로토피아의 이질적인 공간은 르페브르가 논의하고 있는 경험공간(lived space)으로서 사회적으로 창출된 공간성이며 사회적 실천이라고 피력한다.[17] 사실 공간은 동질적이고 가치중립적이며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정치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이다.

> "공간은 역사적 자연적 요소로부터 형성되고 주조되어 왔지만, 이것은 정치적 과정이었다. 공간은 정치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이다. 그것은 글자 그대로 이데올로기로 가득 찬 산물이다."[18]

공간이 정치적이라면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권력의 문제가 개입된다. 푸코는 "거창한 지정학적 전략에서부터 작게는 적은 삶의 공간을 지배하는 전술에 이르기까지 공간들에 대한 기술은 곧 권력들의 역사가 될 것이라고 역술한다."[19] 그러나 헤테로토피아에서는 일상의 권력이 작동하지 않는 질서체계를 가진다.

만주는 청조가 수립된 이후부터 근대 이전까지 만주에서 지배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던 종족은 만주족이었다. 한족 중심의 중국인의 만주 이산이 본격화된 근대부터 만주국의 패망 때까지 만주의 주류 민족은 기본적으로 중국인(만주족을 포함해서)이었다. 그리고 19세기 말부터 러일전쟁까지는 러시아인이 만주에 그들의 영

16) 르페브르,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pp. 39-72.
17) 푸코, 「Of Other Spaces」, *Diacritics*, 16-2, pp. 22-27.
18) 르페브르, *The Survival of Capitalism*(London and Busby), 1976, p. 31.
19) 푸코, *Power and 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Colin Gorden (ed.) (New York: Pantheon Books), p. 149.

항력을 확대시켰고, 만주국 수립 이후에는 일본인이 지배민족으로 등장하면서 만주 사회의 주류 민족이 되었다. 그리고 만주는 전통적으로 몽골족과 회족(이슬람족)의 생활 터전의 일부이기도 했다.[20] 이처럼 만주는 지배 권력의 주체에 따라 중국의 역사가 되기도 하고, 만주국시기에는 일본 역사가 되기도 하며, 철도의 부설과 더불어 러시아의 영향력도 크게 확대되었다,

하얼빈은 동청철도의 부설과 함께 러시아인의 이주가 확대됨으로써[21] 러시아의 문화가 유입되고 그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하얼빈은 도시가 건설된 이래로 하얼빈의 도시 인구는 러시아인이 80%이상이었으나, 우크라이나, 폴란드, 유대인, 아르메니아인, 그루지아인, 타타르인으로 모두가 독자적인 종교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중심을 갖고 있는 결코 균질적인 사회는 아니었다.[22]

러・일전쟁 이후 1907년에서 1914년까지 동안 하얼빈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국제선상으로서 점점 더 지리적 중요성을 더해 갔다. 하얼빈은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갔지만 여전히 문화적으로는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철도산업을 활성화시켜 그것이 하얼빈을 더욱 더 발전시켰다. 짜르 체제의 붕괴와 재건은 러시아 서부를 동부와, 북부를 남부와 서로 분리시켰다. 볼셰비키의 탄압으로 벗어나는 기본루트는 콘스탄티노플을 경유하여 베를린, 프라하, 파리, 런던 등 유럽의 주요

---

20) 윤휘탁, 『만주국 : 식민지적 상상이 잉태한 복합민족국가』, 혜안, p. 20.

21) 하얼빈 러시아 구역에서의 철도공사에 필요한 행정과 잡다한 관련 업무 처리 등으로 인해 하얼빈으로 옮겨온 러시아인은 민간인 1,500명, 철도수비대 4,500명이 동원되었다. Andrew Malozemoff, *Russian Far East Eastern Policy, 1881-1904 :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Causes of the Russo-Japanese War*(Berkerly and Los Angeles: U8), U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 195. 이채문, 「망각 속의 디아스포라 : 20세기 초기 하얼빈의 러시아인들」, 『국제지역연구』, 7-2, p. 266에서 재인용.

22) Thomas Lahusen(ed.), *Harbin and Manchuria: Place, Space, and Identit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p. 53.

도시로 이어졌다. 이중 우랄산맥 동쪽의 주민들은 철로를 따라 시베리아를 거쳐 블라디보스톡이나 하얼빈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블라디보스톡은 바로 공산주의 지배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부분의 난민들은 하얼빈으로 몰려들었다.

도시공간으로서의 하얼빈의 형성에는 두 가지의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 그 하나는 동청철도의 부설과 관련하여 하얼빈의 성립은 러시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견해와, 하얼빈에는 이미 러시아가 도착하기 이전부터 도시라고 할 정도의 훌륭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견해이다.[23]

---

23) 하얼빈 도시성립의 기원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학자들 간에 의견이 다르다. 중국의 입장은 러시아인들이 오기 전에 이미 하얼빈 지역에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데 반해, 러시아 학자들의 입장은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은 어촌으로 표현한다. "1898년은 하얼빈의 역사에서 중요한 해다. 그 이유는 서양인에 의해서 뿐 아니라 심지어 중국인에 의해서도 동청철도 부설과 더불어 하얼빈이 탄생하는 해로 잡는다. 중국인의 근거에 의하면, 하얼빈 이전에 이미 22,370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역사는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약 3000년 전에 'wo shi'라는 이름의 도시가 있었고, 신석기를 거쳐 청동기시대까지 점차로 확대되었고, 황하강유역의 중국민족의 요람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 왔다. 기록에 의하면 우리의 도시는 이미 청동기로부터 계급사회로 분화될 때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 따라서 이 지역은 중국의 문화적 기원과 동일한 시기라고 추정한다." 또한 "일부학자는 하얼빈이 시작은 1097년이라고 제시한다.(Ghan-Chenghe)-언어적 기원에서 Nüzen언어에서 Alejin이라는 장소명으로 추적해 올라간다. 이것은 후에 Qudan(Khitan) 발음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원명은 영광, 명예, 권위와 같은 의미이다. 음성학의 주장에 따르면 진왕조사는 1097년이 'Alejin'의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다. 뉘첸은 1644년으로부터 1911년 까지 청의 이름 하에서 중국을 통치한 만주족의 조상으로 여겨진다. 하얼빈이 뉘첸사회로부터 진화해 왔다는 역사적 사실은 많은 증거가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학자들의 입장은 판이하다. "우리는 길을 잃어 정지했다. 상당한 거리에 강이 있었고, 누구편의 강둑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좁은 길을 따라 우리는 조그만 yimpan(요새)를 보았다. 그곳은 오늘날 송화강 밀가루공장이 들어서 있다. 지금의 Gorodskoy (town garden)인 이곳에는 두, 세 개의 오두막이 지금의 Fujiadiandmp의 중앙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조그만 마을이 있었을 뿐이었다." Soren Clausen & Stig Thøgersen, *The Making of a Chinese City: History and Historiography*

하얼빈은 1896년 제정러시아에 의해 동청철도 건설의 거점으로 송화강과 철도가 접하는 지점을 선정하여 1898년부터 건설된 도시이다. 하얼빈은 러시아의 철도부설권과 관련하여 철도부속지로 선정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러시아의 식민도시로 건설되었다. 러시아 내부의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변하지 철도산업은 번성하면서 하얼빈 역시 번창해 나갔다. 철도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귀중한 기반이 될 것이라던 비테(Sergei Witte)백작의 예언처럼 철도산업은 계속해서 번영해 나갔다. 하얼빈의 황금시대는 1924년에 볼셰비키 지도자들이 철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20년간 하얼빈은 적어도 러시아인들에게는 탈주의 욕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되기 시작했다. 철도를 중심으로 하얼빈은 점차 중국으로부터 탈영토화하기 시작했다.

하얼빈 러시아인들 사이에는 이주나 이산의 경험으로 인해 상호간 같은 도시에 사는 동일 민족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우애를 느꼈다. 이들은 스스로를 제정 러시아의 개척자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청철도의 건설자이면서 만주에서 러시아주의를 전파하는 기수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하얼빈이 궁극적으로 자국 러시아의 일부로 편입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러시아 식민지로 남아 있으리라고 확신하였다.

> "만약 식민지가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 즉 고국의 일부분이 외국의 영토로 전이된 것을 의미한다면, 하얼빈은 동청철도라는 매개물을 통해서 러시아의 식민지가 된 최초이자 유일한 식민지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다.[24]

---

in Harbin, pp. 3-8.

24) Olga Bakich, "Emigre Identity: The Case of Harbin", Thomas Lahusen(ed.), *Harbin and Manchuria: Place, Space, and Identity*, (Duke University Press, 2001), pp. 55-56.

이들 대부분은 스스로가 '일시적'으로 만주에 머물고 있다고 느끼며, 고국과는 강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얼빈 러시아인들의 결속감과 동질성 및 자긍심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제국정부는 1913년, 1923년 등 동청철도 부설 10주년, 20주년과 같은 기념행사와 더불어 근속 근로자들에게 '유빌리야르(Iubilee employ)'는 칭호를 부여하는 등 하얼빈의 러시아인들의 결속감을 고취시키려고 노력했다. 제국정부는 이들에게 동청철도의 건설은 세계적인 무역로를 개통한 것으로, 이 무역로는 하얼빈과 만주지역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준 것이라고 평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은 러시아인들의 영웅적인 행위로 간주되어야만 하며, 자신들의 후손들을 교육시키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자신들의 위대한 업적을 알려야 한다고 역설했다.[25]

그럼에도 러시아의 하얼빈 사람들은 대부분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있었다. 제국정부는 러시아인들의 민족의식을 지속하고 고취시키기 위해 '제국학교'를 건립하여 교육을 통한 민족의식을 강조했다.

> "나는 당시 한 교사가 했던 말을 기억한다. 우리는 모든 러시아인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다. 단지 '러시아에서 왔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즉 학교에서는 국가는 동일한 사람의 총합이라기보다는,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의 총합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26]

하얼빈의 러시아인들의 정체성은 세대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체로 그들이 느끼는 것은 자신들은 국경 밖의 러시아의 제1 세대 주민이라고 생각 한다는 점이다. 가난하고 힘 없지만 자신들은 진정

---

25) *Ibid.* pp. 56-57.

26) *Ibid.* p. 58.

한 러시아의 문화와 전통 나아가 가치를 간직함으로서 자신들의 존재에 의해 러시아를 구하는 것이 고귀한 임무라고 인식하였다. 하얼빈 이주자 중 러시아 시인 알렉세이 아챠이르(Aleksei Achair)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 운명이 우리를 철저하게 굴복시켰지만
> 우리를 파산시키거나, 왜곡시키지는 않았다.
> 고국은 우리를 내몰았기 때문에
> 우리는 고국을 전세계에 전파하였다.[27]

이 시에서 나타나는 것은 제국정부는 하얼빈 러시아인들에게 러시아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심어주려고 노력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얼빈 러시아 이주자들은 하얼빈에서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중의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 다른 남겨진 시나 기록에서도 러시아 이주민들은 조국에 대한 소속감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하얼빈에서의 생활에 다소 만족한 모습을 보이며 그들 스스로를 새로운 인간의 탄생으로 본다.[28]

> 우리는 북쪽 팔미라(제정 러시아 수도인 빼쩨르부르그)를
> 갈망하지만
> 우리의 슬픔은 그렇게 크지 않으리
> 쓰라린 망명생활이 하얼빈에 대한
> 러시아의 최고의 이미지가
> 가혹한 추방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29]

---

27) Aleksei Achair, "Po stranam rasseianiia(In the countries of dispersion), in *Pervaia kniga stikhov* (The first book of poverty), (Harbin, 1925), pp. 69-70, Olga Bakich, *op.cit.* p. 59에서 재인용.

28) James H. Carter, *Creating a Chinese Harbin, Nationalism in an International City, 1916-1932*(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29) Lu Clamens, "Karbin, russike oazis za rubezhom(Harbin is a Russian oasis

여기서 나타나는 바는 하얼빈 러시아 이주민들이 비록 고향은 등졌으나 현재의 생활에 만족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그들의 꿈이지만, 러시아 하얼빈이 그 꿈을 반영해주는 실체인 것이다. 따라서 혁명 이전의 하얼빈 러시아인들은 개척자로서 그리고 철도 건설자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리고 여기서 하얼빈은 또 다른 중요한 요소들: 귀중한 조각난 제정 러시아의 복구자이자 파수꾼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 시기는 러시아 이주민 제2 세대에 속하는 시기로 이들은 제정 러시아에 대한 기억을 없더라도 러시아적이 하얼빈의 이미지를 되살리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구축해 나갔다는 점이다.

이처럼 러시아 하얼빈 이주자들의 특성 중 하나는 세대를 거치면서 '다중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는 점이다. 하얼빈에서의 힘든 상황과 고향에 대한 향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탄생시킨다는 점이야 말로 내적으로 하얼빈이 헤테로토피아로 변해가는 과정의 하나라고 보겠다.

하얼빈이 헤테로토피아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하얼빈의 도시형성 과정에서 나타난다. 즉, 하얼빈은 도시공간과 장소에 따라 국가와 민족 간의 위계가 확연히 구분되어 장소와 공간의 성립에 식민권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도시이다. 하얼빈은 철도부설과 더불어 하얼빈역을 중심으로 먼저 송화강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향방(香坊)지구에 가설 시가지(구시가자)를 설정하고, 다음으로 향방지구와 송화강 사이의 구릉지를 정비하여 행정지구인 남강(신시가지, 南崗), 그리고 송화강 연변의 늪지대를 매립한 상업지구 프리스탄(Pristan, 埠頭지구)을 건설하였

---

abroad)", Rubez(Border), 1(1938), p. 18, Olga Bakish, *op.cit.* p. 59에서 재인용.

다.[30] 예를 들면. 철도부속지인 프리스탄(신시가지)에는 러시아인, 일본인, 영국인, 독일인 등 대부분이 유럽인들이 거주하고, 전가전은 중국인이 거주하는 형태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러한 공간의 분리는 러시아 식민도시에 대한 분리정책이 그 기조를 이룬다.[31]

하얼빈 건설에서부터 나타난 세그리게이션정책에 따라 중국인은 도시건설 초기에 신시가자에 거주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 통행도 금지되어 있었다. 러시아인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철도부속지의 북동쪽, 늪지에 다수의 중국인들이 밀집하여 구락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리스탄 중심지인 키나스카야(Kitaiskaia)가 상업지구로 번성해지자 중국 상인의 일부가 이 전가전(傳家甸)에 가게를 열었다. 이후 전가전은 계속 확대되었고, 1916년에는 시가지 확장 및 도로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전가전 지구에는 다수의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었다.[32]

전가전에 소재한 건축물들의 건축양식은 대부분이 중화바로크 양식으로 '中體西用'의 혼합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33] 이는 건

---

30) 김철권・백태경, 「식민도시의 공간형성과 Segregation에 관한 연구: 1898-1931년의 하얼빈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8(1), pp. 149-150.

31) 하얼빈 도시성립에 관해서는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20세기 전반 만주의 조선인』, pp. 281-285를 참조할 것. 越澤明, 『哈爾濱の都市計劃』, 總和社, 1989 ; 西澤秦彦, 『「滿洲」都市物語』, 河出書房新社, 1996을 참고할 것.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출간된 『근대 만주 도시 역사지리 연구』 중 pp. 258-265를 참조할 것.

32) 중국 상인이 전가전에 점포를 개설한 것은 동청철도가 철도부속권의 행정권을 쥐고 있어 중국인의 철도부속지 안에서의 거주나 상업 활동에는 제약이 동반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전가전지구 뿐만 아니라 중국 각지의 외국인 조계지 주변은 외국인과의 상행위를 위하여 중국인 상인이 모여들어 조계지에 접하는 형태로 마을을 형성하는 것은 일반적이었다. 김철권・백태경, 앞의 논문. p. 153.

33) 중화바로크 건축양식은 '문명개화'를 상징하는 공통의 건축양식으로, 중국고유의 사상과 정신을 가지면서 서양의 기술을 이용하여 근대화를 추진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전가전 중화바로크 집합주택이 평면은 사합원주택이 모델이 되고 여기에 서양적인 의장이 합쳐서 건축되었다. 김철

축상의 혼종성으로 이와 같은 경향은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러시아 제정 권력이 쇠퇴하자 중국의 동청철도 회수와 더불어 전가전 도시 재개발과 함께 중화바로크 양식이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전가전의 특징적인 중화바로크 건축양식은 도시발전과 거주형태 그리고 건축의 형태라는 장소성과 공간성의 형성에 권력이 작동되고 있음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것이다. 또한 하얼빈의 도시건물 구조 자체가 서양과 동양문화가 혼종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로서 또 다른 가시성으로서의 헤테로토피아를 증명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도시공간의 문화적 혼종성과 기억 - 매춘굴, 학교, 공장

만주는 결코 균질적인 공간은 아니다. 만주 속에는 또 다른 공간이 존재하는 중층성을 지닌다. 하얼빈이 '동양의 파리' '동양의 모스크바'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하얼빈 안에는 유럽의 모습도 러시아의 모습도 모두 혼종되어 있는 공간이다. 야마무라는『키메라: 만주국의 초상』에서 '아시아 속에 유럽이 있고 오리엔탈리즘과 옥시덴탈리즘이 혼재되어 있는 공간[34]'이 만주임을 설명한다.

만주에서의 러시아인, 일본인, 유대인, 독일인, 영국인 등 다양한 이주민과 그들의 삶의 방식은 하얼빈에서 문화적 혼종성을 야기시켰다. 이러한 문화적 혼합에 대해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상실하는 문화적 동질화로 간주하는 견해도 있으나, 반대로 문화혼합이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다양성을 가져오고, 나아가 창조적이라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다. 에드워드 사이드는『문화와 제국주의』에서 '모든 문화는 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어느 문화도 단일하

권 · 백태경, 앞의 논문, pp. 154-155.

34) 아마무로 신이치 저, 윤대석 역,『키메라, 만주국의 초상』, 소명출판, 2009, p. 18.

거나 순수할 수 없고, 모든 문화는 혼혈이고 다양하며, 놀라울 만큼 변절적이며 다층적이다'라고 밝혔다.

문화는 때로 제국문화에 흡수되거나 혼합되어 새로운 문화형태를 창조하기도 하지만, 중심과 주변이라는 기본적인 틀이 해체되지는 않는다. 국제도시였던 하얼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얼빈은 시간에 따라 중심부와 주변부가 권력의 주체에 따라 달라지면서 문화적 추이 또한 달라지지만 결코 해체되지는 않는다. 이민자들의 도시인 하얼빈은 다수의 타자들이 새로운 문화주체가 되면서 문화의 혼종성이 두드러지는 도시 중의 하나이다. 만주 이민자들이 각기 다른 이상과 목적으로 하얼빈으로 몰려드는 현상은 노마드적 성격과 유사하며,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들뢰즈식의 표현으로 전쟁기계들인 유목민들이 만주의 역사 속에서 영원히 타자들로 남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혼종문화의 주체들로서 공적기억과 사적기억의 주인공들이 된다. 이들이야말로 "세계 마을의 새로운 원주민"들이며, "포스트식민주의적인 영혼을 지닌 새로운 인종"[35]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끊임없이 원주민들의 문화를 표상하고 '차이'를 생성해 낸다. 이런 의미에서 노마드의 도시인 만주는 바로 헤테로토피아인 것이다.

(1) 매춘굴: 환상과 욕망의 헤테로토피아

푸코는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은 나머지 공간들과 다른 기능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헤테로토피아는 두 가지 방식으로 기능을 하며, 그 하나는 우선 모든 여타의 현실을 통해 더 환상적인 것으로서 격하시키면서 하나의 환상을 창조하는 방식으로 기능하고, 두 번

35) Ulrich Beck (Hg.), *Perspektiven de Weltgesdllschaft*, Frakfrut am Mein, 1998, S. 163ff, 장희권, 「글로벌 세계의 혼종성과 민족주의 - 복합문화 속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독일어문학』, 39, p. 378에서 재인용.

째는 지상에 위치하는 하나의 현실적 장소를 그만의 상상 혹은 환상에 입각해 완벽하게 새롭게 구성하고, 창조하는 방식이 있다. 우리가 첫 번째 방식을 상상에 입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두 번째 방식은 환상이 아닌 보상에 입각한 것으로, 푸코는 이 두 방식의 예로 매춘굴과 식민지를 들고 있다.

푸코가 매춘굴을 헤테로토피아로 상정하면서 '열려 있지만 닫혀져 있는 공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환상'이라는 의미가 동일성과 재현이라는 유토피아적인 공간을 염두에 두기 때문으로 보인다. 매춘굴과 식민지는 사실 '진정한 차이'가 드러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열려있지만 닫힌 공간이며, 제국주의적 규칙체계 또한 작동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헤테로토피아가 된다. 제국주의 주체와 식민주의 주체는 각각 자신만의 질서와 규칙을 내재하고 있으며 이 이질적인 질서들이 서로 상충하는 곳이 헤테로토피아이다. 사실 식민지와 매춘굴은 열려있는 것과 같은 환상을 줄 뿐이지 실제로 열린 공간이 아닌 닫힌 공간이 된다.

그럼에도 매춘굴은 내적 욕망을 충족하는 장소로서 헤테로토피아가 된다. 하얼빈의 경우 매춘굴은 1926년 군벌 시대 이전에 Fujiadian지역에서 이미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 시기에 매춘은 여성의 삶에는 고통스런 영향으로 기억되지만, 이에 관련된 매춘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하나의 고정된 계급으로서 계층화 되었다. 매춘은 원래 공간이나 권력과 밀접한 연계성을 지니지만, 하얼빈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도시공간의 발달과 매춘의 확대는 역사적으로도 연관성을 가지며, 이것은 하얼빈의 경우 그 특징을 여실히 보여준다. 코르뱅(Alain Corbin) 의 말에 따르면 "공식화된 매춘은 하나의 도시적 현상이며 그것은 도시인구의 크기에 비례해서 증가 한다."라고 말한다.[36] 도시공간의 정비와 같은 도시공

36) Alain Corbin, *Les filles de noce, misére sexuelle et prostitution aux 19c et*

간의 변화는 매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 극렬한 예가 바로 하얼빈이다. 하얼빈에는 철도부설에 따른 도시화와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형성은 곧 매춘의 변화와도 직결된다. 하얼빈은 공간의 변화뿐 아니라 권력의 주체에 따라서 매춘의 양상이 변화하는 장소이다, 특히 하얼빈의 경우는 정치권력의 주체 변화가 매춘의 위계변화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하얼빈의 경우 매춘의 상황은 1932년 만주국의 건설과 더불어 매춘굴과 매춘부의 수는 급증했다. 이들에게는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었으며, 세금은 매춘굴의 등급에 따라 부과되었다. 1939년에는 1,979명의 매춘부들이 등록되었으며, 중국인 매춘부가 1,162명, 일본인이 476명, 한국인 230명 그리고 러시아인이 103명이었다.[37] 이런 실증적 연구는 차치하고 여기서 거론하고 싶은 요점은 권력의 주체가 바뀜에 따라 매춘부의 등급 또한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만주국 경우 '위계적 다민족주의'라는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여 성매매제도도 민족별로 위계화되고 분절화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일본에 의한 만주국 건립 이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하얼빈의 중국인은 일본 매춘굴에 출입이 금지되었다. 만주국의 실질권력의 주체가 일본이 됨으로서 만주국에서의 일본인은 '일등국민'이 되기 때문이다.[38]

매춘은 섹슈얼리티의 관점에서 이것은 하나의 '이식된 섹슈얼리

20c siécle, 이종민 역, 『창부』(서울: 동문선), 1995. p. 70.

37) Song Shisheng, "The Brothels of Harbin in the Old Society", Soren Clausen and Stig Thøgersen, *The Making of a Chinese City: History and Historiography in Harbin* p. 104. 상세한 수치에 관해서 국내에 발표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동진, 「민족, 지역, 섹슈얼리티 - 만주국의 조선인 '성매매종사자'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00, 2005(가을 3호), pp. 25-59.

38) 이와 관련하여 이동진의 위의 논문은 만주국 성매매종사자에 대한 통계를 비롯하여 만주국 성매매종사지의민족간·민족내 위계에 관해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티'이고, '수탈된 섹슈얼리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매춘굴이 헤테로토피아인가? 공인된 창가는 "억누를 수 없는 욕망을 방출할 수 있는 건전하고 남의 이목을 끌지 않는 배출구"[39] 인 동시에 '도시적인 삶에 동화되지 못해서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사람들' 또는 '너무나 가난해서 결혼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성인 남성들, 날품팔이 노동자들과 같은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다. 철도의 부설과 더불어 도시로 몰려든 노동자와 이주민들의 숙소로 선호되면서 그 수도 빠르게 증가했다.

하얼빈의 매춘굴은 타자적 공간으로 현실의 제도 속에 존재하면서 그것의 닫힌 상태를 위협하는 헤테로토피아적 생성의 공간이다. 타자적 공간은 비일상적이면서 주변적인 공간으로서 기존의 공간과는 차별적으로 배치된 '일탈의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매춘굴은 비일상성의 공간으로 '환상성'을 포함한다. 이런 의미에서 매춘굴은 일상으로부터의 탈주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공간의 개념상으로는 '매끄럽지 못한 공간'이며 '구멍난 공간'이고 '주름진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의 공간을 지배하는 질서의 환상성과 그 불완전성에 대한 공간적 상찰이 헤테로토피아라고 이해한다면, 매춘굴은 헤테로토피아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경험공간'인 동시에 '유토피아적인 공간'이 된다. 특히 하얼빈의 매춘굴에서 나타나는 위계화와 분절화는 하얼빈, 나아가 만주라는 공간 안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였다. 이런 의미에서 하얼빈은 기존의 질서에 대항한 새로운 불균질한 규칙과 질서가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헤테로토피아인 것이다.

(2) 학교: 일탈의 장소로서의 헤테로토피아

학교는 지식과 권력이 작동하는 일상의 공간이다. 그러나 왕웬

39) Song Shisheng, "The Brothels of Harbin in the Old Society", pp. 103-108.

(Wang Wen)의 이야기는 가난한 어린 학생이 하얼빈의 한 야간학교를 통해 청년공산당(Communist Youth Leage) 단원으로 성장하여 혁명가의 길을 걷게 된 사적경험으로서 일상공간이 어떻게 경험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다시 말해 만주는 제국주의를 위한 질서와 규칙에 위배되는 새로운 이질적인 질서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질서들을 창출해 내었다. 구질서와 신질서 간의 갈등을 통해 하얼빈의 야간학교는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는데 기여하는 이질적인 규칙을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됨으로써 헤테로토피아가 될 수 있었으며, 왕웬의 사적기억은 공적기억의 형성에 천착되었다.

주인공 왕웬이 만약 일본 또는 다른 지역에 있었더라면 그녀에게는 혁명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올 수 없었을 것이다. 만주, 하얼빈이라는 공간이었기에 혁명가로서의 그녀의 삶의 이정표가 완성될 수 있었다. 원래 학교는 차이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종국에는 차이를 통합하여 유토피아를 출현시키는 공간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얼빈의 야간학교는 어린 소녀에게 현실의 공간인 동시에 상상의 공간이고 탈주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근대는 새로운 공간을 낳고 그 공간은 새로운 개인의 탄생으로 이어지며 그 개인은 다시 새로운 공간과 시간 안에서 점차 사회화된다. 이러한 개인과 공간의 연관성 안에서 개인을 구체화시켜 한 시대의 특성을 담은 인간을 살아가는데 가장 대표적인 공간으로는 가정과 학교를 들 수 있다. 특히 근대라는 관점에서는 학교의 중요성이 더해지는데, 그 이유는 학교라는 공적인 공간을 통해서 개인은 다른 차원의 질서를 교육 또는 훈육을 받으면서 근대인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형성되기 때문이다. 사실 새로운 세계와 가치 및 지식을 지향하는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모든 사적인 공간보다는 학교라는 공적인 공간에서의 영향은 더 클 수 있으며, 특히 학교는 새로운 서구 지식이 유입되면서 가치관의 변화를 조장하기 때

문이다.

1928년경 중국은 군벌들에 의해 국가가 조각나고 국민당이 혁명의 기대를 져 버린 상태였다. 러시아 혁명의 '백색공포(White Terror)'가 전국을 휩쓸고 혁명세력은 일시적으로 쇠퇴했다. 왕웬은 이런 어두운 중국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하얼빈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부모님을 잃고 혹독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녀는 어린시적 한 자본주의 매판가의 부인의 하녀로 팔려갔다.

비록 14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온갖 집안의 허드렛일로부터 주인여자의 몸종 일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삶은 혹독함 그 자체였다. 그녀의 유일한 기쁨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밖으로 나왔을 때 하얼빈동부중학교(Harbin Eastern Provinces Special Zone First Middle School-현재는 Harbin First Middle School)의 정문에서 학교 안을 들여다보면서 내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그것은 언제쯤 나는 그들과 같이 될 수 있을까, 그들처럼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들과 놀이를 함께 할 수 있을까, 아무런 간섭 없이 체육수업을 받을 수 있을까와 같은 생각들이었다.[40]

어느날 왕웬은 그 학교의 교장으로부터 무료로 학교에 다닐 것을 제안 받았다. 그 학교는 자발적 지원자들이 후원하는 극빈자를 위한 학급이 특별히 운영되고 있었다. 교재는 후원금으로 충당되었고, 교사들은 무료로 봉사하며, 도서관의 책들은 대부분 기증받은 것들이었다. 한 교실에 저학년과 고학년 초등학교 수준의 학생들이 몰려있어 한쪽이 수업을 받을 때 다른 한쪽은 숙제나 연습문제를 풀었다. 학생들 모두가 배움에 대한 열렬한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방해 없이 중국어, 산수, 러시아어 등을 지칠 줄 모르고 습득했다.

---

40) Wang Wen and Liang Fushan, "A Harbin People's Night School in 1928", *The Making of Chinese City*, pp. 97-98.

러시아혁명의 '백색공포'의 영향으로 학교에서는 마르크스주의나 잉여가치설, 또는 사적유물론과 같은 이론들은 언급조차 할 수 없었지만, 암암리에 학생들은 이러한 이론들에 관한 책을 접할 수 있었고 가난한 학생들은 이 이론에 쉽게 빠져 들었다. 후에서야 왕웬은 이러한 이론들이 마르크스에 의한 위대한 발견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학교에서는 물신론, 민족의 자유, 여성해방, 러시아의 10월 혁명과 더불어 학생들이 하얼빈에서 경험하고 있던 일상의 주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논의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한 에세이를 쓰기도 했다.

왕웬을 비롯한 야간 중학교 학생들과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1928년 11월 9일 하얼빈에서 일어났던 중국 북동부 5개 철도 건설을 통한 일본 제국주의 침략 시도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자진하여 참가했다. 당시 중국 북동부지역은 혁명파와 반혁명파들이 서로 군중을 설득시키려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고, 반동(보수)주의자들은 중국동청철도를 자본화하려고 의도했다. 만주지역당위원회(Mancurian Provincial Party Committe)는 대중들에게 일본의 음모를 폭로하여 '11월 9일의 항일운동(November Ninth Movement)'을 통해 일본의 철도건설을 저지하려고 노력했다. 야간학교에도 선전책자와 군중시위에 참여하여 상처입고 병원에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첩이 보내졌다.

왕웬의 어린시절은 이처럼 제국의 권력과 이에 저항하는 식민권력 간의 갈등, 신·구 이데올로기 간의 갈등, 빈·부의 갈등으로 점철된 하얼빈이라는 공간 속에서 지나갔다. 원래 자신은 밝은 미래를 꿈꾸며 불교를 믿었으나, 교육을 받은 후에는 부처가 구원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무신론자로 전향했다. 무신론자는 불량배로 취급되던 시기에 왕웬의 결정은 교육으로 인해 발생한 내적 변화가 기존의 질서와 상충되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해 하얼빈의 전통적 중국인으로서의 삶 대신에 혁명가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1935년에 왕웬은 12·9 반일학생운동(December Nineth Student movement)에 참여하면서, 그녀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한다. 하얼빈의 사회적·역사적 갈등의 소용돌이가 성장기 왕웬에게 새로운 이질적인 질서를 내부에 천착시키게 된 것이다. 한편으로 하얼빈의 야간학교는 왕웬의 주체성에 변화를 일으키는 일탈의 장소였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욕망의 장소로 작동함으로서 헤테로토피아가 될 수 있었다.

⑶ 공장: 창조적 주체의 탄생과 헤테로토피아

헤테로토피아는 글자 그대로 '다른 공간'이면서 '타자의 공간'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모든 장소와 관계를 맺으면서도 동시에 그것에 저항하는 주변적 공간이다. 푸코에 의하면 헤테로토피아는 그 기능면에 있어서 기존의 사회공간과는 다르며 심지어 대립적이기 조차 한 특이한 공간이다. 헤테로토피아는 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공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것들의 합법성을 교란시키는 기묘한 장소이기도 하다.

공장이란 원래 미시권력의 작동에 의한 일상공간이다. 그러나 하얼빈의 동청철도 부설과 관련된 러시아와 중국 철도 노동자들의 단합된 노동운동은 그들이 국가와 민족의 개념을 넘어서서 단일의 동질성을 보이면서 현실에 저항하고 배치를 달리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에서 분명 하얼빈이 헤테로토피아임을 입증한다. 이 사건은 노동운동의 새로운 시발점이 될 수도 있으며, 후일 만주국 이념에서 강조한 진정한 오족협화 정신의 구현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에너지가 분출되는 새로운 주체의 탄생으로, 소위 신인류, 신인종의 탄생으로 간주할 수 있다.

오족협화는 지금까지 지배의 도구이고 지배 이데올로기로 인식되어 왔지만 실제 러시아 노동자와 중국인 노동자의 연대는 국가

와 민족을 넘어서는 민초들의 연합으로 이것은 오늘날 세계화로 인해 나타나는 균질화된 공간을 넘어서는 전략이 될 수 있다. 1898년 중국의 동청철도의 건설과 더불어 하얼빈에는 다수의 러시아 노동자와 중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었다. 1903년에 동청철도가 완성되자 하얼빈역에는 3,000여 명 이상의 중국인과 러시아 노동자들이 군집하고 있었다. 철도와 기관차와 관련된 다수의 러시아 기술자와 노동자 외에, 중국에서는 길림성과 산동성으로부터 온 곤궁한 농민과 소(小)수공업자들이 노동자로 고용되었다, 러시아 노동자들의 풍족한 임금과 보다 나은 대우와는 대조적으로 중국 노동자들은 거의 노예와 다를 바 없을 정도의 적은 봉급으로 고용되어 혹독한 일에 시달렸다.

1905년 8월 러·일 전쟁이 러시아의 패배로 끝나면서 포츠머스조약이 체결된 이후 중국의 북동부는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권으로 나뉘어졌다. 이에 따라 만주의 남쪽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진 반면, 동청철도를 따라 세력을 확대한 러시아는 중국인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동시에 남부 요동지역으로부터 약 80,000여명의 노동인력을 징발함으로써 하얼빈은 최대의 중심지가 되었다. 북동부 지역을 약탈한 러시아는 중국동청철도에 대한 군사적 지배권을 획득하고 러·일전쟁에서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동청철도 중국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더욱 강화하여, 그들의 삶을 지옥으로 빠뜨렸다. 중국인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러시아 제국권력으로부터 그들의 종속적이고 노예와 같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1907년 1월 중순경 하얼빈의 러시아 노동자들이 상트페테르부르그의 노동자들의 대중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이후 두 번째의 기념일을 맞아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그 뉴스는 사전에 유출되어 노동자 지도부들 중 일부가 러시아 군대에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소식을 들은 중국 노동자들은 곧바로 행동을 취해 러시아 노동자들의 투쟁을 위해 함께 연대할 것을 결정했다. 그들은 러시아

황제에 대한 깊은 증오만큼이나 러시아 노동자 형제들에 대해서는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중국 노동자의 지도자인 우테(Wu Tai)는 분연히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러시아 황제의 정부는 우리의 러시아 노동자 형제들을 살육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중국 노동자들) 그들(러시아 노동자들)을 위해 일을 중단해야만 한다."[41]

지도자인 우태는 러시아 노동자들과 협의하여 상트페테르부르그 대학살 기념일인 1월 22일 아침에 함께 행동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감금된 러시아 노동자들을 해방해 줄 것과 그들의 목표가 실현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선포했다. 이들의 요구는 성공적이어서 체포된 러시아 노동자들은 풀려나서 이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러시아 노동자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 "이 스트라이크는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중국인 노동자 형제들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처럼 우리를 도왔다. 이 투쟁은 단지 그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42]

이 투쟁과정 중에 러시아와 중국 노동자들은 깊은 전투애를 지녔다. 이러한 과정을 거듭하면서 중국인 노동자들은 점차 국제 노동자혁명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을 인지하게 되었고 러시아 제국권력에 대항한 그들의 갈등은 훨씬 더 깊어졌다. 이 운동은 점점 확산되어 인쇄소를 비롯해 밀가루 공장의 노동자들까지도 '국제 노동절(International Labour Day)'을 기념하는 운동에 참여했다. 드디

---

41) Zang Fushan, "Harbin Workers Were the First to Commemorate May Day", *The Making of a Chinese City: History and Historiography in Harbin*, pp. 90-91.

42) *Ibid.*, p. 92.

어 노동절에 이들은 일부는 붉은 기를 흔들면서 송화강 유역으로 몰려나왔다. 러시아 노동자들은 사륜마차와 오케스트라를 동반하고 나왔으며, 다수의 학생들, 사업가들, 일반 시민들이 노동절 기념에 규합하였다.

러시아 철도 책임자와 군대의 도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동절이여 영원하라(Long Live May Day)”, ”노동은 신성하다(Labour is Sacred)“ 그리고 “세계의 프롤레타리아들은 연합하라(Proletarians of the World Unite)”라는 구호를 다투듯이 외쳤다. 일부 중국인 노동자들은 중국인 노동자들의 비인도적인 처우에 대해 분개하고, 중국인의 착취로 러시아 지배계층이 얼마나 큰 부를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 비난을 퍼부었다. 이 연설은 철도를 따라 철도 노동자를 비롯하여, 운송 노동자들, 부두 노동자들 및 밀가루 공장 노동자들에게로 점차 확산되어 나갔다. 노동자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의 질적 향상과 하루 8시간 노동을 위해 함께 투쟁했다.

하얼빈에서 1907년 5월 1일의 러시아와 중국인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은 중국동청철도 노동자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다. 이 사건은 제국권력과 식민권력의 갈등이라는 일상공간의 삶을 뛰어 넘고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탈피하면서 새로운 주체, 신인종의 탄생을 예고한 것이다. 이들은 제국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제국을 이용하며, 일상공간을 경험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주체들로 재탄생한 것이다. 여기서는 적어도 민족적 편견이 배제되며, 이데올로기를 체현하는 현실적 층위가 붕괴되고 제국과 식민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헤테로토피아가 된 것이다.

4. 결언-하얼빈과 공간들

만주라는 장소와 공간은 동아시아에서 경계의 불일치한 장소이

며, 사이 공간이기도 하다. 이 공간은 근대국민국가 또는 공동체로부터 차별당하고 배제되어온 공간이다. 그곳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은 국가, 제도 그리고 법과 같은 근대적 생명장치의 시스템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벌것벗은 생명(호모 사케르)'이었다. 이들은 더 이상 국가 공동체·국민·국어의 공동 사용자가 아니며 모든 곳에서 타자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이들은 새로운 공간에서 스스로의 삶에 형태와 의미를 부여하면서 공간을 재확립해 나갔다. 만주에서의 식민권력과 제국권력의 갈등은 이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간섭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고 새로운 공간을 창조해 나갔다.

넓게는 만주, 좁게는 하얼빈을 공부하는 것은 한국 현대사를 동아시아라는 보다 거시적 지평에서 조망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비교사적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하다. 또한 러시아, 유대인, 일본을 비롯한 서양 각국의 문화를 통해 동아시아 사회의 재구성 과정에 미친 사회문화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보다 폭넓고 심층적인 해석학적 지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1910년 이래로 하얼빈의 식민지의 역사를 부정하고, 하얼빈의 혼종적 정체성을 부정하면서 중국식 정체성 작업을 확립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로 하얼빈의 경제발전을 위해 과거를 재구성하고 공적, 사적 기억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해 오고 있다. 이는 하얼빈의 관료들이 세계의 문화적, 경제적 분야에서 경쟁력을 얻기 위한 도구로 하얼빈의 비중국적인 과거를 재조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얼빈의 유럽적 과거의 부정은 하얼빈 건립 100주년 행사가 현대 하얼빈이 러시아에 의해 세워졌음을 인정하기 싫었던 북경 관리들에 의해 무산되었던 1980년대에 절정에 달했으나,[43] 1990년대 이후 하얼빈에는 러시아와 유대인의 유적을

43) Thomas Lahusen, "A Place Called Harbin : Reflections on a Centennial", *The*

다시 복구하는 손길이 바쁘다. 최근 우리나라 뉴스(2014. 1월 19일)에서도 하얼빈에 안중근의사 기념관이 세워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과 일본 간의 영토분쟁을 둘러싼 국제적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국 관광객을 겨냥한 중국의 계획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공간은 이데올로기화하면서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변화·발전해 나간다. 1990년대 이후 하얼빈의 정책이 이를 가장 확연하게 증명하는 사례이다. 하얼빈 시 당국이 제작한 "Hotel Modern"은 하얼빈을 유럽에서 탄압받던 유대인 이주민들의 천국으로 그린다. "유대인이 역경에 처했을 때, 친절한 유대인들은 현재에도 도시 내의 유대인 공동체가 다시 번영할 수 있도록 환영합니다."[44] 이 같은 선전은 철저한 상업적 계산에 의한 것이지만 '하얼빈의 중국 만들기'에 열렬하던 중국이 하얼빈의 '비중국적 과거'를 재현한다는 점에서 과거와 현재의 혼재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 지금 만주와 헤테로토피아인가?

하나의 국가에 복수의 민족이 거주하는 것, 하나의 민족이 복수의 국가에 거주하는 것이라는 현상은 근대 만주 역사의 특수성이다. 근대 국가가 단일의 민족을 기반으로 한 국가 개념을 기반으로 할 때 단일의 국가, 다수의 민족이라는 개념은 오늘날의 세계화와 세계사가 지향하는 유토피아적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지 않을까? 19세기 이래 서양이 경험해온 '단수의 보편역사(History)'가 지니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미래의 새로운 민족과 국가의 개념인 민족들에 의한 '복수의 역사들(histories)'이 만주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China Quarterly, 154(June, 1998), pp. 400-410.

44) Harbin City Beaureau of Foreign and Overseas Chinese Affairs, 犹太人在哈爾濱的遺, Youtarian Zai Harbin de yuj, *The Relix of Jews in Harbin*(DVD, 2008), James Carter, 「미래의 하얼빈사」, 『만주연구』, 9, p. 80에서 재인용.

물론 만주국은 유토피아적 다민족 국가가 아니라 윤휘탁의 지적처럼 그 자체 내에 위계질서와 권력 간의 작동에 의해 갈등이 내재한 '상상에 의한 복합적 민족국가'였을 지라도 그 이상은 미래의 세계가 지향해야 할 교훈이 내재해 있음을 자각할 필요도 있다. 일본은 만주에서 인종·언어·습속·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는 다민족 사회 형성을 시도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질적인 것의 공존에 대한 지향이 아니라 동질성에 대한 복종을 협화가 달성된 사회로 간주하는 것이었다. 야마무로 신이치의 말처럼 아마 진정한 민족협화란 이질적인 민족과 문화가 혼재하면서 충돌과 마찰을 일으키고 그러한 부딪힘이 발생시키는 스파크를 활력원으로 하여 새로운 사회 편성과 문화를 형성해 감으로써 생겨날 것이다.[45]

만주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는 인문·사회과학 연구에서의 시간이라는 기축만으로 대상을 파악해왔지만 앞으로는 공간 자체의 특성과 공간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시각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른 자연환경과 다른 풍토에서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했는가, 혹은 도대체 인간에게 있어 공간이란 무엇인가를 근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하얼빈의 헤테로토피아는 하얼빈 도시공간 연구의 확장이며 복수의 공간 탄생을 의미하고, 근대성의 닫힌 공간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탈근대성 시대의 대안의 공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Wen Wang, 'A Harbin People's Night School in 1928', Søren Clausen

45) 야마무로 신이치, *op.cit.*, p. 271.

& Thøgersen Stig, *The Making of A Chinese City: History and Historiography*, Studies on Modern China, 1995.

Harbin City Beaureau of Foreign and Overseas Chinese Affairs, 犹太人在哈爾濱的遺, Youtarian Zai Harbin de yuj, *The Relix of Jews in Harbin*(DVD, 2008).

2. 논문

강정민・김동일,「미셸 푸코와 미술관에 관한 테제들」,『인문연구』, 66, 2012, pp. 135-159.

김구진,「만주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만주연구』, 3, 2005, pp. 13-23.

김수림,「제국과 유럽: 삶의 장소, 초극의 장소」,『상허학보』, 23, 2008, pp. 139-183.

김철권・백태경,「식민도시의 공간형성 Segregation에 관한 연구: 1898-1931년의 하얼빈을 중심으로」,『아시아연구』, 8-1, 2005, pp. 147-162.

민유기,「19세기 파리의 도시하와 매춘」,『사총』, 62, 2006, pp. 139-174.

배정희,「카프카와 혼종공간의 내러티브-『국도 위의 아이들』과 헤테로토피아」, 카프카연구, 22, 2009, pp. 43-60.

이동진,「민족, 지역, 섹슈얼리티 - 만주국의 조선인 '성매매종사자'를 중심으로」,『정신문화연구』, 28-3, 2005, pp. 25-59.

이호규,「주체형성 장치로서의 가상공간과 커뮤니케이션 모델: 르페브르와 푸코의 논의를 중심으로」,『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7-2, 2010, pp. 173-213.

유진월,「나혜석의 탈주욕망과 헤테로토피아」,『인문과학연구』, 35, 2008, pp. 26-51.

윤 피터,「만주족의 정체성과 '한화'이론에 대한 서구 학계 신간 소개」,『만주연구』, 2, 2005, pp. 173-182.

이현재,「매춘의 도시지리학과 공간생산을 위한 투쟁」,『사회이론』, 2008, 봄・여름, pp. 111-133.

이채문,「망각속의 디아스포라 : 20세기 초기 하얼빈의 러시아인들」,『국제지역연구』, 7-2, 2003, pp. 258-289.
장세룡,「헤테로토피아: (탈)근대 공간 이해를 위한 시론」,『대구사학』, 95, 2009, pp. 285-316.
조은주,「일제말기 만주의 도시 문화 공간과 문학적 표현 - 신경, 하얼빈을 중심으로」,『한국민족문화』, 48, 2013, pp. 99-135.
최덕규,「러시아의 대만주 정책과 동청철도(1894-1904)」,『만주연구』, 6, 2007, pp. 5-25.
최정옥,「작청 소설에 나타난 하얼빈의 도시 이미지」,『만주연구』, 9, 2009, pp. 7-36.
허경,「미셸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 초기 공간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시인문학연구』, 2011, 3-2, pp. 234-267.
Foucault Michel, "Of Other Spaces: Utopias and Heterotopias", *Architedture /Mouvement/ Continuité,* (Oct. 1984).
Reld-Pharr, Robert F., "Disseminating Heterotopia", *African American Review,* 28-3, 1994, pp. 347-357.
Tsukase, Susumu,「근대에 있어서 만주의 민족문제」,『만주연구』, 6, 2010, pp. 75-85.
Wen Wang & Fushan Liang, "Yijuerba nian Haerbin de pingmin yexiao", *Harbin Shizhi* [Harbin History and Gazetteer] , no. 2(1985), pp. 75-77.
Shisheng Song, "Jiu shehui Haerbin de jinüyuan", *Harbin Shizhi* [Harbin History and Gazeteer] , no. 2(1988), pp. 52-54.

3. 단행본

김경일 · 윤휘탁 · 이동진 · 임성모,『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20세기 전반 만주의 조선인』, 역사비평사, 2004.
유지원 외 공저,『근대 만주 도시 역사지리 연구』, 동북역사재단, 2007.
나카미 다사오,『만주란 무엇이었는가』, 박선영 역, 소명출판, 2006.
윤휘탁,『만주국: 식민지적 상상이 잉태한 복합민족국가』, 혜안, 2013.

투안 이-푸 저, 구동회・심승회 역,『공간과 장소』, 대윤, 1995.

Bearing, Maurice, *With the Russians in Manchuria*,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Libraries), 1905.

Carther, James, *Creating a Chinese Harbin : Nationalism in an International City, 1916-1932*, (Ithca・London: The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Chiasson, Blaine R. *Administering the Colonizer: Manchuria's Russians under Chinese Rule, 1919-29* (Vancouver: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2010.

Clausen, Soren・Thogersen Stig, *The Making of a Chinese City: History and Historiography in Harbin*, (London: An East Gate Book), 1995.

Crang, Mike・Thrift Nigel, *Thingking Space,* 최병두 역,『공간적 사유』, 에코리브르, 2013.

Harvy, David, *The Condition of Post Modernity: Am Enquiry into Origins of Cultural Change*, (Oxford, Blackwell), 구동회・박영민,『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1994.

Lahusen, Thomas (ed.), *Harbin and Manchria: Place, Space, and Identit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1.

Lefebvre, Henri, *La Production de L'espace*, 양영란 역,『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Raeff, Mark, Russia *Abroad: A Cultural History of the Russian Emigration, 1919-1939,*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South Manchuria Railway Company, *Manchuria, Land of Opportunities*, (Forgotten Books), 2012.

Tand, Peter S. H.・Mosely, Philip E., *Russian and Soviet Policy in Manchuria and Outer Mongolia, 1911-1931,*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59.

Wolff, David, *To the Harbin Station, The Liberal Alternative in Russian Manchuria, 1898-1914,*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Harbin and Heterotopia: Discrepancy between Imagination and Reality

Kim, Mee-Kyu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city of Harbin as Heterotopia in the frame of Foucault's discussion. The conception of space has been changed from ancient to modern, plane to multiple system. Nowadays the conception of space is becoming more important than time consuming. Foucault suggested three conception of spaces, 'Imaginary space', 'Phenomenal world' and 'Utopia'. Heterotopia, according to Foucault, could be understood as the 'Imaginary space', 'Phenomenal space' 'Transition space' and also 'spaces for making of differences'.

Harbin as a space is the 'deterritorialized space' for Chinese and 'a line of flight' for Russians and 'expression of arising desire' for Japanese. Besides, the territory itself always belongs to China, but the control of power has been ruled by Chinese, Russian, Japanese and Chinese Communists in the course of a hundred years. In a larger perspective, Harbin has experienced all the stresses and strains associated with China's modern transformation, but to an exceptional degree. Harbin has been transformed to 'the Third Space' to produce a 'New man' and a 'New mankind' on the basis of various migrates.

This study doesn't intend to redefine and rediscover the history of Manchurian in the perspective on the basis of positive study, but to light up the Mancjurian history on the different historical perspective according to the conception of Foucault's Heterotopia, through the space phenomena of the 'Night School', 'Brothels', 'Labour Movements' in Harbin. In conclusion, this article would suggest that Manchuria is not any more 'the inanimate space but 'the vigorous and vital space' than any other spaces. I would suggest that on the occasion of gaining a new interpretation on the history of Manchuria, the world can be filled with 'histories', not 'the History'. Furthermore, East Asia and the

world can be placed with more justified and impartial angle in history. With our endeavors and efforts to interpret and discover behind meaning of histories, we would have accomplish the real “Flat World”.

Key words: Harbin, Heterotopia, Michell Foucault, Space, Time, Cultural Hybridity, Creative Subject, Prostitution, Nightschool, Labour Movement

김미경
소속: 대구가톨릭대학교
주소: 경북 영천시 야사동 청구아파트 102동 503호
전화번호: 054-332-2234
전자우편: meekkim@hanmail.net

이 논문은 2014년 3월 18일 투고하여
2014년 4월 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4월 16일 게재 확정함